

#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와 취업 스트레스 및 취업불안과의 관계

조미경<sup>1</sup> · 최은지<sup>2</sup> · 이지원<sup>2</sup> · 이유나<sup>2</sup> · 채지영<sup>2</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sup>1</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sup>2</sup>

##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Cho, Mi Kyoung<sup>1</sup> · Choi, Eun Ji<sup>2</sup> · Lee, Ji Won<sup>2</sup> · Lee, Yu Na<sup>2</sup> · Chae, Ji Young<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sup>2</sup>Student,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concern regarding appearance according to gender,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nd the influence appearance has on job-seeking stress and anxiety under the ever-increasing pressure on students to secure employment so that appropriat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can be provided to undergraduat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70 third and fourth year undergraduates in Gyeonggi province from August 31st to September 6th, 2012 to figure out the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in variable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oncern,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nd job-seeking stress and anxiet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gender.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two-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for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oncern.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higher in male students while concerns regarding appearance were higher in female studen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regarding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2. For the concerns in appear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in appearance management, and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Stress and anxiety from job-seeking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s, but there were common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between gender and grades, gender and employment, and gender and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3.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job-seeking stress as thei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in male students who had higher concern in appearance, and in female students who placed mor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Conclusion:** As female students perceived appearance in job interviews as important more than male students, their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while male students who showed higher concern in appearance also showed higher level of anxiety in job-seeking. As job-seeking anxiety was higher, job-seeking stress was also higher according to the entire participants, based on this result, methods to decrease job-seeking anxiety should be suggested.

**Key Words:** 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Appearance, Undergraduates

**주요어:**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외모,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Cho, Mi Kyoung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461-713, Korea.

Tel: +82-31-740-7415, Fax: +82-31-740-7415, E-mail: ciangkcho@eulji.ac.kr

투고일 2013년 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10일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규모는 2004년 42만 명에서 2009년 7.2만 명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32.3만 명, 2012년 43.5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2013년 7월 8.3%로 증가하여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이 되는 수는 적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이에 반해 동일 기간, 대학 등록금은 평균 22.7%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취업 학원비는 23.0%, 외국어 학원비는 25.4%가 증가하였다.<sup>2)</sup> 즉, 위와 같은 통계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부담하는 금전적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실제 취업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Kim<sup>3)</sup>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75.6±22.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 감소와 취업준비를 위한 부담감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불안 증가로 스펙 못지않게 취업 면접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면접이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보통 두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화 또는 말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면접관은 짧은 시간 이내에 지원자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은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면접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자의 외적 이미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한 층 더해진다.<sup>4)</sup> 실제 면접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면접관의 다수가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적 이미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지원자의 외적 이미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sup>4)</sup> 면접관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선발 요소가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의 첫인상이 긍정적인 외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5)</sup> 또한 Kim과 Kim<sup>6)</sup>의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여성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18.5%로 3위를 차지한 부분이 '외모'이었다. 이는 면접관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외모'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김에 따라, 취업준비자들은 헬스, 피부 관리, 미용성형, 다이어트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외모

관리는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로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7)</sup> 실제로 대학 신입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미용성형 수술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23명 중 41명(12.7%)에서 "취직을 위해서"라고 하여 외적 이미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sup>8)</sup>

즉,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면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면접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에 시행된 하반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20대 취업준비생 2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미지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면접경험이 있는 124명 중 84%(104명)가 면접 전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외모관리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답했다. 이중 1개월 관리한 경우는 39%, 2~3개월은 26%, 4~5개월은 8%, 6개월 이상 관리한 경우도 11%에 달해 평균 관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접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 역시 과반수는 취업면접을 위해 이미지나 외모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sup>9)</sup> 이를 토대로 면접에 있어서 외모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취업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심도,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 및 취업요인으로서의 외모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4년제 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이 가지는 취업불안, 취업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특히 남녀의 차이를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취업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성별에 따른 대상자가 지각하는 외모만족도, 외모관심

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 불안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남녀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에 의해 수도권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effect size) 0.5, 검정력(power) 0.8로 산출한 결과, 총 128명으로 남녀 각각 한 그룹 당 필요한 대상자는 64명이었다. 여기에 20~30%의 탈락률을 고려해, 탈락률을 25%로 하여 그룹 당 85명씩 총 170명이 필요한 표본수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여학생 85명, 남학생 85명, 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탈락률 없이 170부 모두 회수되어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허락한 자만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

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4. 연구도구

#### 1) 외모만족도

남녀 대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외모에 대해 인지하는 외모만족도는 “매우 낮음” 0점에서 “매우 높음” 10점까지의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인지하는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외모관심도

남녀 대학생들의 외모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Cash (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에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10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 AE)를 선택하여 Cho와 Koh<sup>10)</sup>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외모관심도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3) 면접 시 외모비중

남녀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면접 시 외모비중은 “매우 낮음” 0점에서 “매우 높음” 10점까지의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인지하는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취업 스트레스

남녀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CMI)’을 참고하여 Hwang<sup>11)</sup>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72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한 Kang<sup>12)</sup>의 취업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은 성격 스트레스 요인 6문항, 취업 스트레스 요인 3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요인 5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요인 4문항, 학업 스트레스 요인 4문항의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의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sup>12)</sup>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2$ 였으며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907$ 이었다.

### 5) 취업불안

남녀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불안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Cho<sup>13)</sup>가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 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 11문항, 취업불안 유발원인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56$ 이었으며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959$ 였다.

### 5.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였고,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자료수집을 위해 각 학과의 학과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승인을 얻었다. 과목 담당 교수와 3, 4학년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여 수업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0~15분 소요되었다.

### 6.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외모관심도, 외모만족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외모관심도, 외모만족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two-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총 170명으로 남학생 85명, 여학생 8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2.36 \pm 1.70$  (Range: 19~27)세이었고, 22세 이하가 106명(62.4%)이었고, 23세 이상이 64명(37.6%)이었다. 학년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4학년과 다음해 취업대상인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학년이 108명(63.5%)이었고, 4학년이 62명(36.5%)이었다. 종교가 있는 자가 80명(47.1%), 없는 자가 90명(52.9%)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취업이 확정된 자가 36명(21.4%), 미취업 상태인 자가 132명(78.6%)이었다. 외모 관리여부에서는 평소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44명(25.9%)이었고 관리하지 않는 자가 126명(74.1%)이었다. 면접에서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7.08 \pm 1.44$  (Range: 2~10)점이었고, 평균을 중심으로 7.0점 이하가 110명(64.7%)이었으며, 7.1점 이상이 60명(35.3%)이었다(Table 1).

### 2.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 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남학생이 평균  $6.42 \pm 1.95$ 로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의 평균인  $5.84 \pm 1.6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 = -2.113, p = .036$ ). 또한 외모관심도에서는 여학생이 평균  $42.48 \pm 6.14$ 로 남학생의 외모관심도의 평균인  $39.31 \pm 7.9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 = 2.917, p = .004$ ). 즉, 자신의 현재 외모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은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 3.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 $F = 1258.523, p = .018$ )와 외모관리( $F = 166.463, p = .049$ )에서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학년 간에는 외모만족도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F = 5.189, p = .024$ ). 외모관심도는 외모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emale (n=85)	Male (n=85)	Total (n=170)
		n (%)	n (%)	n (%)
Age (year)	≤ 22	71 (41.8)	35 (20.6)	106 (62.4)
	≥ 23	14 (8.2)	50 (29.4)	64 (37.6)
	M±SD		22.36±1.70	
Grade	Junior	50 (29.4)	58 (34.1)	108 (63.5)
	Senior	35 (20.6)	27 (15.6)	62 (36.5)
Religion	Yes	38 (22.4)	42 (24.7)	80 (47.1)
	No	47 (27.6)	43 (25.3)	90 (52.9)
Employment	Yes	27 (16.1)	9 (5.4)	36 (21.4)
	No	56 (33.3)	76 (45.2)	132 (78.6)
Appearance management	Yes	32 (18.8)	12 (7.1)	44 (25.9)
	No	53 (31.2)	73 (42.9)	126 (74.1)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 7.0	49 (28.8)	61 (35.9)	110 (64.7)
	≥ 7.1	36 (21.2)	24 (14.1)	60 (35.3)
	M±SD		7.08±1.44	

**Table 2.** Gender Difference in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ncern,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Variables	Female (n=85)	Male (n=85)	t	p
	M±SD	M±SD		
Appearance satisfaction	5.84±1.62	6.42±1.95	-2.113	.036
Appearance concern	42.48±6.14	39.31±7.94	2.917	.004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7.16±1.31	7.00±1.57	0.716	.475
Job-seeking stress	47.59±13.79	50.06±13.68	-1.173	.243
Job-seeking anxiety	66.51±23.22	70.19±21.80	0.254	.288

리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532.673, p=.028$ ), 그 외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면접 시 외모비중에서는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과 외모비중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F=3.392, p=.049$ ).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과 성별( $F=10.727, p=.001$ ), 취업여부와 성별( $F=6.459, p=.012$ ),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F=6.288, p=.013$ )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취업불안 역시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과 성별( $F=12.304, p=.001$ ), 취업여부와 성별( $F=7.907, p=.006$ ), 외모관리여부와 성별( $F=4.360, p=.038$ ),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F=5.309, p=.022$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Table 3).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의 상관관계**

전체 변수 간 상관관계는 면접 시 외모비중과 취업불안은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154, p=.045$ ),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불안 간에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781, p<.001$ ). 즉,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불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서 취업불안은 취업 스트레스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 $r=.713, p<.001$ )를 나타냈고 외모관심도와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 $r=.252, p=.020$ )를 나타냈다. 여학생 또한 취업불안은 취업 스트레스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 $r=.842, p<.001$ )를 나타냈고 면접 시 외모비중과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 $r=.245, p=.024$ )

**Table 3.** Comparison of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ncern,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Characteristics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ncern							
	Female		Male		F	p	Female		Male		F	p
	M±SD	M±SD	M±SD	M±SD								
Age (year)	≤22	5.89±1.58	6.80±1.51	Age	8.358	.212	42.94±6.21	41.29±6.47	Age	119.158	.058	
	≥23	5.57±1.86	6.15±2.19	G.	19.922	.140	40.14±5.35	37.92±8.62	G.	47.194	.092	
				Age*G.	0.260	.611			Age*G.	0.049	.826	
Grade	Junior	5.53±1.70	6.60±2.01	Grade	0.020	.911	42.26±5.93	38.74±8.32	Grade	3.508	.312	
	Senior	6.27±1.42	6.04±1.81	G.	0.409	.638	42.80±6.49	40.52±7.06	G.	21.980	.134	
				Grade*G.	5.189	.024*			Grade*G.	0.294	.588	
Religion	Yes	5.84±1.54	6.44±1.73	Religion	3.066	.330	43.26±6.01	39.64±9.78	Religion	7.761	.219	
	No	5.83±1.71	6.40±2.17	G.	1,258.523	.018*	41.85±6.23	38.98±5.71	G.	75.797	.073	
				Religion*G.	0.003	.953			Religion*G.	0.116	.734	
Employment	Yes	6.20±1.18	5.67±1.94	Employment	0.022	.906	41.89±6.63	39.44±5.22	Employment	0.475	.616	
	No	5.58±1.74	6.51±1.95	G.	0.071	.835	42.73±5.91	39.29±8.23	G.	34.781	.107	
				Employment*G.	3.785	.053			Employment*G.	0.109	.742	
AM	Yes	6.20±1.38	6.83±2.25	AM	102.842	.063	41.47±5.94	38.17±5.64	AM	97.410	.064	
	No	5.61±1.73	6.35±1.91	G.	166.463	.049*	43.09±6.23	39.49±8.28	G.	532.673	.028*	
				AM*G.	0.024	.878			AM*G.	0.012	.913	
IAJI	≤7.0	5.63±1.48	6.13±1.63	IAJI	7.754	.219	42.59±6.41	40.49±7.16	IAJI	1.280	.461	
	≥7.1	6.11±1.79	7.15±2.50	G.	8.175	.214	42.33±5.84	36.29±9.13	G.	4.267	.287	
				IAJI*G.	0.865	.354			IAJI*G.	2.975	.086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Job-seeking stress								
Age (year)	≤22	7.24±1.35	7.17±1.38	Age	15.552	.158	46.93±13.59	49.66±13.87	Age	1.993	.392	
	≥23	6.75±1.05	6.88±1.69	G.	0.098	.807	50.93±14.85	50.34±13.68	G.	0.416	.635	
				Age*G.	0.140	.709			Age*G.	0.432	.512	
Grade	Junior	7.34±1.40	7.34±1.53	Grade	5.871	.249	51.72±11.30	48.81±14.01	Grade	0.191	.738	
	Senior	6.90±1.15	6.28±1.43	G.	1.025	.496	41.69±14.99	52.74±12.78	G.	0.340	.664	
				Grade*G.	1.891	.171			Grade*G.	10.727	.001*	
Religion	Yes	6.87±1.36	6.86±1.66	Religion	11.063	.186	46.16±12.42	51.29±15.98	Religion	0.001	.979	
	No	7.39±1.23	7.14±1.47	G.	1.194	.472	48.74±14.84	48.86±11.06	G.	1.095	.486	
				Religion*G.	0.301	.584			Religion*G.	1.401	.238	
Employment	Yes	7.06±1.00	7.22±1.39	Employment	0.015	.923	40.93±15.13	54.11±12.29	Employment	0.140	.772	
	No	7.25±1.43	6.97±1.59	G.	0.061	.846	50.88±12.21	49.58±13.83	G.	0.674	.562	
				Employment*G.	0.520	.472			Employment*G.	6.459	.012*	
AM	Yes	7.20±1.01	7.67±1.44	AM	1.444	.442	43.91±15.12	51.83±15.72	AM	0.232	.714	
	No	7.13±1.47	6.89±1.57	G.	0.099	.806	49.81±12.55	49.77±13.42	G.	0.978	.504	
				AM*G.	1.627	.204			AM*G.	2.315	.130	
IAJI	≤7.0	6.30±0.91	6.25±1.07	IAJI	59.951	.082	43.37±12.69	50.33±13.93	IAJI	0.681	.561	
	≥7.1	8.33±0.73	8.90±0.86	G.	0.742	.547	53.33±13.29	49.38±13.29	G.	0.076	.829	
				IAJI*G.	3.392	.049*			IAJI*G.	6.288	.013*	
Job-seeking anxiety												
Age (year)	≤22	65.65±22.98	70.57±16.70	Age	0.605	.579						
	≥23	70.86±24.83	69.92±24.91	G.	0.463	.620						
				Age*G.	0.501	.480						
Grade	Junior	74.82±18.28	68.93±19.68	Grade	0.452	.623						
	Senior	54.63±24.56	72.89±25.97	G.	0.262	.699						
				Grade*G.	12.304	.001*						
Religion	Yes	67.08±21.33	72.90±22.79	Religion	2.185	.379						
	No	66.04±24.86	67.53±20.70	G.	2.852	.340						
				Religion*G.	0.390	.533						
Employment	Yes	52.93±23.69	75.22±32.16	Employment	0.319	.673						
	No	73.16±20.54	69.59±20.45	G.	0.524	.601						
				Employment*G.	7.907	.006*						
AM	Yes	60.31±24.28	77.00±27.56	AM	0.013	.929						
	No	70.25±21.94	69.07±20.72	G.	0.754	.545						
				AM*G.	4.360	.038*						
IAJI	≤7.0	58.96±22.34	69.77±22.19	IAJI	1.395	.447						
	≥7.1	76.78±20.51	71.25±21.19	G.	0.105	.801						
				IAJI*G.	5.309	.022*						

G.=gender; AM=appearance management; IAJI=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p<.05.

를 보였다. 여학생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면접 시 외모 비중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 $r=.306, p=.004$ )를 나타냈다. 남녀학생 모두 취업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외모에 대한 요인이 관련이 있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남녀 대학생 각 85명씩, 총 17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외모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적 특성에서 종교와 외모관리 여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이것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고 더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up>14)</sup>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입된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크며, 외모를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풍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결과, 외모만족도가 낮은 여학생에서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 결과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고, 특히 외모관리여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Song<sup>15)</sup>과 Mellor 등<sup>16)</sup>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 평균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Kim<sup>17)</sup>의 연구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한 것과 다소 일치하지만, Lee<sup>18)</sup>와 Kim<sup>17)</sup>에서 나온 결과인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본 연구가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본 연구의 4학년 학생들 중 21%는 간혹대 학생으로서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므로, 취업을 위한 외모관심도는 한창 취업불안이 높은 3학년 학생들이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sup>17)</sup>의 연구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외모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한 것은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고, 그 결과 선배들의 취업 준비와 취업 현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위학년이 취업과 관련 있는 외모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외모관심도가 연령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업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취업불안으로 인해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미취업 학생들과 취업한 선배들 간에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면접에서의 외모비중은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면접관들이 주의 깊

**Table 4.** Correlation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ncern,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N=170)

Variables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Appearance satisfaction		1				
2. Appearance concern	Total	-.078 (.313)				
	Male	-.122 (.266)	1			
	Female	.077 (.485)				
3. Importance of appearance in job interview	Total	.117 (.129)	-.110 (.154)			
	Male	.125 (.253)	-.112 (.308)	1		
	Female	.131 (.232)	-.146 (.181)			
4. Job-seeking stress	Total	-.030 (.696)	.033 (.672)	.126 (.102)		
	Male	-.068 (.534)	.165 (.130)	-.015 (.892)	1	
	Female	-.018 (.867)	-.088 (.423)	.306 (.004)		
5. Job-seeking anxiety	Total	-.109 (.155)	.109 (.158)	.154 (.045)	.781 (<.001)	
	Male	-.141 (.198)	.252 (.020)	.086 (.435)	.713 (<.001)	1
	Female	-.108 (.324)	-.013 (.903)	.245 (.024)	.842 (<.001)	

게 보는 사항에 관한 설문에서 1위가 외적 이미지가 83%를 차지하고 그 외 입사열정, 인성, 설득력 있는 답변 및 상황대처 능력, 눈 마주침 순으로 나온 연구결과<sup>19)</sup>와 면접에서의 외모 효과에 대한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비교 논문이 없어서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비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MBA 면접상황에서 외모의 효과를 실험한 연구에서는 비록 외모가 직접적으로 면접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외모와 의사소통능력의 상호작용으로 면접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sup>20)</sup>도 있어서 면접자와 피 면접자의 면접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Suk과 Choi<sup>21)</sup>에 의하면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자격증 획득을, Park과 Ban<sup>22)</sup>에 의하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업준비행동과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그 관계를 알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있어서 외모관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취업을 위해 긍정적인 외적 이미지 확립과 취업에서 필요한 외모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과 성별, 취업여부와 성별,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Kim<sup>23)</sup>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Suk과 Choi<sup>21)</sup>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72%가 학교의 위상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Shin과 Chang<sup>24)</sup>의 연구에서 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건계열 3학년 학생비율이 높고 4학년 학생의 58%가 취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Kim<sup>23)</sup>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일반대학 학생들로 남학생과 4학년 학생 비율이 높았고, 자료수집기간에 취업 준비의 막바지에 있는 4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보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3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높았고,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년과 성별 간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학생은 전수가 간호대 학생이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간호대

학생과 다른 학과 학생이 섞여 있음으로 여학생에서는 선배들의 취업준비와 결과를 지켜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취업준비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남학생에서는 대부분이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보건계열 학생들로서 본격적인 취업준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결과, 취업불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과 성별, 취업여부와 성별, 외모관리여부와 성별,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여학생에서는 3학년이, 남학생에서는 4학년이 취업불안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Kim과 Choi<sup>25)</sup>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학년에 비해 4학년에서 취업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취업불안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취업불안이 전체 평균  $66.51 \pm 23.22$ , 남학생이  $70.19 \pm 21.80$ 로 남학생의 취업불안의 평균이 높았던 것에 반해 남자보다 여자가 취업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sup>26)</sup>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취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 자살생각을 본 연구<sup>25)</sup>에서 같은 척도로 측정된 취업불안의 평균이 평균  $75.6 \pm 22.4$ 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취업불안이 조금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보건계열학과의 학생들로 비교적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불안이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한 학생들에 비해 미취업 학생들이 취업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전에 취업불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취업 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서는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에게서는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취업 불안에 외모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취업에 있어 면접 시 외모에 대한 평가로 취업유무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Shin<sup>27)</sup>의 연구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용모를 면접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외모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ho<sup>28)</sup>의 비서전공자 대상의 취업 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졸업생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중요도의 순서는 인성, 자격증 순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 학력, 외모는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Yang 등<sup>29)</sup>의



지원자와 면접관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승무원 채용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에서 승무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면접관과 다양한 면접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항공사별 승무원 채용 기준으로 단정한 이미지와 용모를 인재 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취업면접시의 이미지가 면접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현상<sup>4,7,27-29)</sup>에 따라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취업 면접 시 취업하기 위한 기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므로 취업기관별 어떠한 이미지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시 일개 대학의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외모관심도, 면접에서의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취업불안의 차이와 변수간 상관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만족도와 외모관심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외모만족도는 남학생이, 외모관심도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시 외모비중, 취업 스트레스, 취업불안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리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과 면접 시 외모비중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학년과 성별, 취업여부와 성별, 면접 시 외모비중과 성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면접 시 외모비중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취업불안이 높았고, 취업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녀 학생 모두 취업 불안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은 면접 시 외모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취업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 학년,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업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셋째,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나 정책적으로도 취업지

원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 REFERENCES

- [e-Country Indicator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2008. [Trend of employees and unemployment rate]; [updated 2013 Aug 23; cited 2013 Sep 11].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63](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63).
- The Bank of Korea Economic Statistics System [Internet]. Seoul: The bank of Korea; c2010 - [cited 2013 September 11]. Available from: <http://ecos.bok.or.kr/>.
- Kim CS. Effects of the pursued job valu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certified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university graduates on their job search stress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12.
- Kim HR. A influence of external images of job applicants on interviewers' judgement [dissertation]. Cheongyang: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2009.
- Jin SH. Studying image matching in job interviews [dissertation]. Gyeonggi: Kangnam University; 2010.
- Kim BH, Kim JA. Attitude and preparation toward employ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5;11(1):39-51.
- Yoon SY. A study on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in college women - focused on hair, skin care, makeup, and cosmetic surgery [dissertation]. Daejeon: Hanam University; 2007.
- Lee G, Lim HS, Jang KS. Status of perceptions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The Dong-Guk Journal of Medicine. 2006;13(1):27-36.
- Song BG. [Preparing for job interview, appearance management for more than an average 2 month] [Internet]. 2011 Aug 16 [cited 2013 Sep 11]: Available from: [http://www.vitaminmd.co.kr/news/view\\_md?newsid=00MuW](http://www.vitaminmd.co.kr/news/view_md?newsid=00MuW).
- Cho SM, Koh AR.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Soc Cloth Text. 2001;25(7):1227-38.
- Hwang SW.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1998.
- Kang YR.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dissertation]. Gyeonggi: Dankook University; 2006.
- Cho GP.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 Educ Res. 2008; 46(2):53-75.
- Won KH.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gree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sex-role identity between primary school boys and girls.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03;16(1):135

-48.

15. Song MJ. A study on TFC attitude, interest in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Beauty Art*. 2012;13(1): 137-57.
16. Mellor D, Fuller-Tyszkiewicz M, McCabe MP, Ricciardelli LA. Body image and self-esteem across age and gende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Sex Roles*. 2010;63(9-10): 672-81. <http://dx.doi.org/10.1007/s11199-010-9813-3>.
17. Kim EJ. A research on the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an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1.
18. Lee KS. A research of desire self-image and appearance - management behavior in women according to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dissertation]. Seoul: Seo Kyeong University; 2007.
19. Choi YJ. A study on image consulting for employment interview [dissertation]. Gyeongsan: Kyungil University; 2009.
20. Jeong MG, Park JH, Kim MS. The effects of appearance under the context of MBA interviews. *J Organ Manag*. 2011;35(2), 1-23.
21. Suk T, Choi SH. A study of ways of enhancement employment through employment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 and analysi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 Dong-a Univ Business Res Cent*. 2009;30:241-69.
22. Park SJ, Ban JH.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in Korea. *Korean J Popul Stud*. 2006; 29(3):29-50.
23. Kim JJ.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stress [dissertation]. Gyeongna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2.
24. Shin HK, Chang JY.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Korean J Clin Psychol*. 2003;22(4):815-27.
25. Kim EJ, Choi KW.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Con spring comprehensive academy conference; 2012 May 25-26;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Daejeon: The Korea Contests Association; 2012, p. 351-2.
26. Cho MJ.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0.
27. Shin MJ. [A study on determination factor of job interview] [dissertation]. Seoul: Ehwa Womans University; 2007.
28. Cho YA. Exploratory research on employment-related variables of secretary-majored graduates in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J Secretarial Sci*. 2013;22(1):147-65.
29. Yang YK, Lee JH, Lee DH. The evaluation of cabin crew recruitmen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nterviewer and interviewee). *J Aviation Manag Sci Korea*, 2013; 11(2):3-26.